

영생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이 뭘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곧 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곧 신인데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귀 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도 있고 마귀의 신도 있는대로 하나님의 신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되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이 이기면 이긴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마귀를 이겨야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관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관대한 마음이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항상 갖기만 하면 바로 죽을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바로 번덕쟁이 마음, 신경질 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가 나게 사는 사람은 이제 오래 살 수 없고,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세상에서 남 못할 노릇을 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가 많게 되어 있는대로 이 세상에 원수가 없으려면 바로 동굴동물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원망을 듣는 생활을



구세주 조희성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으면 싸가지고 갈 수 없고, 산 사람한테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영생 얻는 게 급선무지 돈 버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려면 바로 죽을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마음, 영생의 확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면서 죽을 피는 소·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소변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지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피, 마귀

의 피가 쏟아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피가 자꾸 생기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쌀 3가마꼴의 시멘트 6포를 짊어지고 뛰었다고 했던 것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 가져야 피 안 썩어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번덕이 심한 것이 마귀의 마음이고, 십년이나 백년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항상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눈이지 마귀에게 보라는 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 봐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고,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으로만 쓰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이 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입이라는 건 마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한 마디만 하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욕 돌리는 말 한 마디만 하면 그사

람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기 전에 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입을 가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라는 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만 필요한 입이요, 밥 먹을 때만 필요한 입이지 마귀 소리 하는 데는 필요치 않은 입이고로 마귀 말을 입에다 담으면 결국은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게 하여 한 생명이라도 실족케 하면 연자 맺들을 메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만 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제단 나오는 건 귀한 일인데 입 방정을 떨어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차라리 승리제단 안 나오니만 못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면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까지도 다 끌고 지옥에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이 사람이 신앙 간증담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은 평생 전도만 했다고 그랬는데 밥만 먹으면 전도를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전도만 한니까 이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은 입에 담을 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시간시간이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긴자가 되는 것이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은혜가 되고, 전도할 때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7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道(도)의 근본은 반대생활

여러분들 나를 이긴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 쉬우냐 하면 반대생활만 하면 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이제 일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또 사람을 미워할 때에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그 것은 바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대생활을 해야 구원이지 반대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여러분들이 지구 땅 위에 6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세주만이 아

는 지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하나님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종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생활을 하면 바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설 땅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많은 "도(道)"가 있지만 반대생활을 하는 것이 "도(道)"지, 반대생활을 안하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2001년 11월 9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다. 그런데 매일 마음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마음을 인다는 것은 바로 인간 전부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서 오고 그 마음으로 인해 몸이 느끼는 다양한 반응(가벼움 무거움 힘듦 괴로움 답답함 등)과 변화(약함 튼튼함 날씬함 통통함 조체함 등)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예부터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생기며 어느 곳에 깃들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논쟁해 왔다. 혹자는 가슴에 혹자는 머리에 혹자는 심장에 있다고 하며 서로의 주장을 펼쳐왔다.

현대 의학: 정신작용 두뇌의 산물

현대 의학에서는 정신 작용을 두뇌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 주장과 이유를 살펴보자.

척수와 함께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신체 각 부분을 통솔

하는 기관이다. 뇌를 구성하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여 근육과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할 뿐 아니라, 생각 기억 상상 등 인간의 복잡한 정신 활동을 일으킨다고 한다.

뇌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두뇌와 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영사기와 필름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영사기에 작용하는 필름에 따라 나타나는 화면이 달라지듯 두뇌에 작용하는 피의 상태 여하에 따라 심상(心狀)에 나타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신은 두뇌에만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육체(피)에 깃들여

신체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체중의 2~3%에 지나지 않지만 두뇌에 흘러드는 혈액의 양은 전체의 20% 이상에 달한다. 두뇌로 흘러드는 혈관이 막히든가 파손되어 혈액이 흘러들지 못하면 그 부분이 관장하는 기능에 마비현상을 불러 일으켜 중풍과 같은 증세를 나타낸다. 또 정신과 기억에



문제가 생겨 각가지 정신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정신의 작용은 피(심장)를 떠나 일어날 수가 없다. 즉 정신은 두뇌에만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육체(피)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 마음과 정신이 다른 양상을 드러내 보인다고 오랜 옛날부터 말해 왔다. 생명 탄생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본다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엄마의 배속에서 피로써 오장육부와 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뇌와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 마음씀씀이와 생각의 폭이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의학이 지금까지 과학화되지 못한 때는 뚜렷한 기억 체계와 이성 능력이 두뇌로부터만 나오는 것으로 믿었고 또한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요즘은 인간의 신체, 특히 뇌와 심장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생리해부학적 심리학적인 지식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발달해서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세월 임상과 해부학적 지식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머리로서만 생각되고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우리는 특별한 자각없이 온 몸으로 반응하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운데서도 운동분야에서는 머리로서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감각적인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은 통설이다. 그러므로 온 몸에 기억과 마음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야 좀 더 근원적인 답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하나의 근원적인 답을 찾는다면, 바로 마음은 명확하게 펫속에 있다고 해야 맞다.

근래에 밝혀진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년간 장기이식을 받은 이들을 연구해 온 미(美)에리조나주립대의 게리 슈왈츠 교수는 장기이식으로 기억까지 이전된 사례가 자신이 아는 것만 70건, 그는 특히 심장에도 기억이 저장된다고 주장, 또 다른 미국 연구자 역시 심장에 신경세포들로 이뤄진 작은 뇌가 있어 두뇌의 명령과 통제 없이도 스스로 기억과 감정을 인

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에리조나에 사는 60대 남성은 심장 이식수술 후,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운동광(狂)으로 변한 사실, 관심없던 재즈 가수 사티의 음악에도 심취하게 되었다. 몰라보게 달라진 면모의 원인은 뭘까? 추적해보니 그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 할리우드의 스테인맨이었으며, 사티의 팬이었다. 이처럼 심장을 이식받거나 성격이나 취향, 식성 등이 기증자와 똑같이 변한 흥미로운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온화하던 성격이던 김모씨는 새 심장을 얻은 후 결팃하던 핏대를 세우는 다혈질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또 심장을 이식받은 어린 소녀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악몽을 매일 꾸다. 알고보니 이 소녀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가 살해당해 죽은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조사된 사건상황과 견주어보니 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였다. 게다가 소녀는 꿈속에서 본 범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가 담겨져 나가고 들어오는 장기가 심장(心腸)이다. 심장은 여러 가지 감정의 모체로 생명성과 심성(心性)의 상징인 것만 보아도 피가 마음이고 마음이 펫속에 있음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본다.*

김주호 기자